

하야시 후미코의 『번개(稲妻)』론

- 세이코의 내면 갈등을 중심으로 -

이상복*
sblee@syu.ac.kr

<目次>

- | | |
|-------------------|--------------------|
| 1. 서론 | 3. 세이코의 내면화 된 차별의식 |
| 2. 세이코에 있어 가족의 한계 | 4. 결론 |

主題語: 번개(The Thunder), 가족(family), 내면 갈등(internal conflicts), 편견(prejudice), 결혼(marriage)

1. 서론

1936년(소화 11년) 1월에서 9월까지(8월 결호)『분개이(文藝)』를 통해서 발표 된 『번개(稲妻)』는 하야시 후미코(林芙美子, 이하 ‘후미코’로 약칭)가 사카와 이쿠야(酒匂郁也, 『문예』편집자)로부터 장편 의뢰를 받고, 생애 최고의 작품을 쓸 각오로 시작한 작품이다. 평소 “유명한 고가의 초목”보다 “이름도 없는 잡초”에 더 관심이 많았던 후미코는 “각 인물의 인생관, 그 인물을 둘러싼 세상”의 “평범한 생활 교향곡”¹⁾같은 것을 쓸 계획이었다. 그러나 후미코의 의도대로 전개되지 않자, 서둘러 마무리 한 『번개(稲妻)』를 작가로서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²⁾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작가의 평과는 달리, 이타가키 나오키(板垣直子)는 “최초의 장편소설로 성공한 작품”³⁾, 후쿠타 기요코(福田清人)는 여자가 아니면 그려낼 수 없는 “섬세한 관찰과 자상한 문장”⁴⁾이 더욱 돋보인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연 역시 “뛰어난 문학적 재능”이 돋보일 정도로 “등장인물의 개성과 보편성을 완벽하게 설정해 놓은 작품”⁵⁾이라는 호평을 하고 있다.

* 삼육대학교 일본어과 부교수

1) 林芙美子(1952)「著者の言葉—長篇小説集創作ノート—」『林芙美子全集』5 新潮社, p.272

2) 林芙美子(1952)「私の仕事-自作案内書」『林芙美子全集』19, 新潮社, p.246

3) 板垣直子(1965)「小説『婦人作家評傳』日本圖書センター, p.181

4) 福田清人・遠藤充彦(1992)「『稲妻』」『人と作品-林芙美子』15, 清水書院, p.147

『번개』의 첫 배경은 미쓰코와 남편 료헤이가 운영하고 있는 헌옷가게에서부터 시작된다.⁶⁾ 등장인물 구성은 어머니 오세이(おせい)를 중심으로 큰딸 누이코(縫子)와 남편 류키치(竜吉), 아들 가스케(嘉助), 둘째 딸 미쓰코(光子)와 남편 료헤이(呂平), 셋째 딸 세이코(清子) 등이며, 이들 형제의 아버지가 세 사람이나 된다. 그 중 미쓰코와 세이코만 아버지가 같다.

이 가족 구성원의 작품 전반에 걸친 활약에 있어, 이타가키 나오코는 “첫 번째 누이코와 세 번째 세이코”⁷⁾, 박호영은 “미쓰코 중심”⁸⁾으로 전개되어 있다고 적고 있다.

이렇듯 세 자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고에서는 오세이와 자매들의 생활 모습과는 달리 건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세이코에 주목한다. 후미코도 인물 설정에 있어, “신체적 불구예다 사생아이지만 강직한 성격”의 젊은 여자 세이코가 구니무네(國宗)와 만나는 오쿠보(大久保)에서의 생활을 시작으로 묘사하고 싶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⁹⁾

비록 작가가 의도하는 대로 그려내지 못하고 세이코와 구니무네와의 짧은 만남으로 마무리하고 말았지만, 본고에서는 후미코가 등장인물 가운데 가장 이성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는 세이코¹⁰⁾를 통해 표출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세이코가 느끼는 가족의 한계와 내면의 갈등을 분석해 나가기로 한다.

2. 세이코에 있어 가족의 한계

이 작품의 가족 구성 중심에 있는 오세이는 가스케(嘉助)가 중국으로 떠나자 혼자 살아가고 있다.¹¹⁾ 아직 결혼하지 않은 세이코는 미쓰코 집에서 기거하고 있다. 세이코는 형제들이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 “아버지가 세 사람”¹²⁾이나 되는 오세이 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5) 최연(2004)「후미코(林芙美子) 문학연구-여성성의 표현 양상을 중심으로-」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48

6) 후미코는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 얼마동안 헌옷가게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무대를 이 작품에서 그려 보고 싶었다.”고 밝히고 있다. 林芙美子(1952)「著者の言葉」전게서, p.270

7) 板垣直子(1965), 전게서, p.181

8) 박호영(2009)「후미코(林芙美子)의『번개』(稻妻)론」『일본문화연구』30호 동아시아일본학회, p.307

9) 林芙美子(1952)「著者の言葉」전게서, p.273 참조

10) 이타가키 나오코는 “세이코가 실제로 하야시 후미코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板垣直子(1965), 전게서, p.180

11) 오세이의 남편이었던 누이코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가스케 아버지는 홋카이도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사망하였다. 현재까지 딸들과 연락이 되고 있는 미쓰코와 세이코의 친부 다카네자와(高根澤)는 아자부(麻夫)에서 후처인 오쿠메와 사이에서 태어난 오세이(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형제들 중에서도 특히, 당시 여성들이 잘 하지 않았던 “주식”과 “경마”에 돈을 대기도 할 정도로 배짱이 좋으며 “달변가”(p.26)이기도 한 큰언니 누이코는 성격이 포악했다. 게다가 여동생 미쓰코가 20세 되었을 때, 자신과 내연 관계에 있던 료헤이와 서둘러 결혼시킨다. 자매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약해서 남이 시키는 대로”(p.19) 잘하는 미쓰코는 누이코의 계략으로 료헤이와 결혼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연히 세이코와 목욕탕에서 돌아오는 길에 누이코와 료헤이가 만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두 사람 사이를 의심하게 된다. 그러나 미쓰코가 정작 본인들에게 말도 못하고 기회만 엿보고 있는 동안 료헤이가 갑자기 사망하자,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밝히지도 못한 채 그 사실은 묻히고 만다.

누이코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악어가죽 가공과 반접기로 유명한 직공이었던 남편 류키치(42세)가 관동대지진 이후 전업하여 가방 도매를 시작했으나 잘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쓰나키치(37세, 류키치의 친구)와 교제하게 된다.

작가는 「저자의 말」에서 “‘피’라고 하는 것에 성격이 있다”¹³⁾는 것을 쓰고 싶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피”와 관련된 범주에 “성격”이라는 것을 부모와 관련 있는 선천성으로 보면, 누이코의 아버지 “술주정뱅이”에 오세이의 “남성편력” 성향을 이어 받은 사람이 누이코로 그려져 있다. 미쓰코는 “마음이 약한 것”이 아버지를 닮았다. 그러나 세이코는 “아버지도 닮지 않았지만, 오세이도 닮지 않았다”(p.99). 이렇게 혈연관계의 동질감과 이질감을 함께 표현하고 있다. 또한, 양(兩)부모가 동일할 때가 한쪽만 동일한 경우보다 더 친밀감을 느끼는 것을 아래 문장의 미쓰코에 대한 세이코의 감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미쓰코의 우는 모습을 보자, 이상하게도 육친에 대한 애정이 솟아 세이코는 오세이나 누이코만큼은 싫지 않은 기분이었다. 아버지가 같다는 것도 미쓰코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세이코는 미쓰코에게 만든 조금이나마 혈연(血緣)을 느끼고 있었다.¹⁴⁾

미쓰코 역시 한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전화 교환 일로 밤샘을 하고 있는 여동생의 모습”(p.13)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세이코를 생각하는 마음이 각별했다. 그러나

12) 森英一(1992)「長篇へー『稲妻』」『林芙美子の形成—その生と表現』有精堂, p.146

13) 林芙美子(1952)「著者の言葉」전개서, p.272

14) 『稲妻』의 텍스트 인용은 林芙美子(1952)『林芙美子全集』5, 新潮社 에 따름. 이하 동일.

光子の泣いてゐる姿を見ると、不思議に肉親に対する愛情がふつふつと湧いてきて、清子はおせいや縫子ほどには辛くあたれない気持ちだつた。父親が一緒だと云ふ、そんなことも光子と近く寄り添はしてゆくのが知れなかつたが、清子は光子にだけは、仄々した血のつながりを持つてゐた。

(p.102)

어머니인 오세이가 딸 세이코를 이렇게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장면은 어디에도 없다. 세이코는 평소 이런 미쓰코에게 만든 조금 다른 감정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어머니 오세이를 비롯해 형제들 모두 남처럼 느껴졌다. 게다가 미쓰코를 통해 누이코와 가스케의 아버지도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가스케 오빠 말이야, 소에다(添田) 아버지의 아이가 아니라네.”

“에? 어째서?”

“언니말로는, 소에다(添田) 아버지랑 다카네자와(高根沢) 아버지 사이에 가스케 오빠의 아버지가 있다는 거야. 깜짝 놀랐다니깐.” (중략)

세이코는 차를 준비하면서 “엄마도 불행한 사람이네.”라며 아무렇지 않게 중얼거리고 있다. “불행한 사람이라고? 미워 세이코잖¹⁵⁾, 조금도 불행한 사람이 아니지 않니? 나는 항상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엄마를 동정 할 수가 없어.”¹⁶⁾

미쓰코는 형제들의 아버지가 한사람 더 있다는 사실에 세이코가 오세이를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자, “항상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엄마”를 “동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세이코는 오세이를 동정한 것이 아니었다. 평소 “나는 나”라며 가족관계를 부인하고 싶었던 세이코의 자포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다.

세이코는 마음속으로 ‘언니와 오빠도 아버지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고 반박하고 있었다. 다른 아버지가 한 명 더 늘었다고 불안해하는 언니의 소심함을 비웃고 있었다. ¹⁷⁾

세이코는 이런 일이 밝혀지기 전 부터도 오세이의 남자관계를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엄마가 우리를 낳은 것에 화가 난 거예요. 나는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나 사생아 라고해

15) 텍스트에서 표기되어 있는 ‘さん’과 ‘ちゃん’은 한국어 ‘씨’로 번역하여야 하나, 문장 흐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씨’, ‘상’, ‘짱’등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16) 「嘉助さんね、添田の父さんの子ぢやないんだつてね。」「へえ? どうして」「姉さんの話ぢや、添田の父さんと、高根沢の父さんとの間に、嘉助さんの父があるんですつてさ、吃驚したのよ。」(中略) 清子は茶を淹れながら「母さんも、不幸なひとだわね。」と何気なくつぶやいてゐる。「不幸な人? 厭な清子ちゃん、ちつとも不幸なひとぢやないぢやないの。勝手なことばかりしてゐて、私は、母さんなんか同情できないわね。」(p.15)

17) 清子は心のうちに、姉だの兄だの、父親が違ふつて云つて、それが何なのと反駁してみた。違ふ父親が一人ふえたからと云つて不安さうにしてゐる姉の気持ちの狭さがをかしかった。(p.15)

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사생아라도 좋으니까 자매의 아버지가 다 같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누이코상도 미쓰코짱도 가스케상도 나는 조금도 자매처럼 생각되지 않아요. 만나면 알미를 뿐이에요”¹⁸⁾

세이코는 오세이에게 자신이 “언청이”라거나 “사생아”라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아버지가 각기 다르다는 게 화가 난다고 말한다. 이 말은 곧 오세이의 복잡한 남자관계를 탓하는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나이가 70세가 다 된 오세이가 지금도 머리카락을 검정색으로 물들이면서까지 젊어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며 아직 젊었을 때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세이코는 이런 오세이에게서 태어난 형제들과 “가족”이라는 “견고한 유대감”(p.31)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싫었다.

한편, 미쓰코는 갑작스런 료헤이의 사망으로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다행히 생전에 료헤이가 말하고 다니던 보험금을 실제로 받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료헤이와 내연관계에 있던 다무라 리쓰(田村りつ)는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의 존재를 밝히며 보험금 일부를 줄 것을 요구했다. 미쓰코는 받은 보상금을 다무라 리쓰와 중국으로 가는 오빠 가스케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 돈으로 커피숍을 차렸다. 그러나 돈이 모자라 쓰나키치의 도움을 받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두 사람은 교제하게 된다. 결국 누이코와 미쓰코가 쓰나키치를 사이에 두고 싸움이 벌어졌다.

“오늘 아침 간다(神田)의 미쓰코 집에서 급하게 와 달라며 심부름꾼을 보내와서 무슨 일이 있나 가 보았더니, 집 안의 문을 완전히 닫아 놓고 누이코와 미쓰코가 자매끼리 싸움을 하고 있었어. 그 싸움만 하고 있는 게 야냐. 누이코는 누이코대로 쓰나키치씨에게 계속 맞았고, 미쓰코는 맞은 여개가 아프다며 봉당에 웅크리고 있어, 이쪽 저쪽 모두 심각한 상황이라 가정부도 깜짝 놀라고, 쓰나키치 씨는 쓰나키치대로 떡 버티고 있어, 도무지 손을 쓸 수 없었어…….”¹⁹⁾

오세이는 세이코에게 위로 받고 싶었지만,

18) 「私はねえ、母さんが、私達を生んでくれたことに怒ってるのよ。—私は、自分がこんなに生れつてることや、私生子なんかだつてことに怒ってるンぢやないのよ。私生子でもいゝから、姉妹がみんな一人のお父さんだつたらいいと思ってるのよ。—お縫さんて、光ちやんだつて、嘉助さんだつて、私は少しも姉妹のやうに思へない……逢へば憎らしいだけだわ…」(pp.94-95)

19) 今朝、神田の光子の處から、至急に來てくれと云ふ再使ひをよこしたもので、どんなことが起きたのかと行つてみたら、お前、家ちゆうを閉めきつてしまつて、縫子と光子が姉妹喧嘩なンだよ。その喧嘩もひととほりのもんぢやない…縫子は縫子で綱吉さんに殴られ通しだし、光子は打たれた肩が痛い云つて土間へつくばつて、あつちもこつちも大變な始末で、女中も吃驚してゐるし、綱吉さんは綱吉さんで大の文にふんぞりかへつてゐるし、どうにも手がつけられないんだよ……」(p.83)

“당신이 피가 다른 아이만 낳으니까. 누이코도 가스케도 미쓰코도…….”

세이코는 일부터 언니나 오빠의 호칭은 빼고 이름만 부르며 마음속으로 ‘제대로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라며 형제를 비난하고 있다.

“엄마는 어째서 모두와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야? 변변치 않은 자식들만 낳아서, 다른 아버지들의 피가 싸우고 있는 것 같아. 엄마에게는 모두 피를 나눈 자식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는 정말 민폐야…….”²⁰⁾

세이코는 오세이에게는 다 똑같은 자식일지 모르지만 형제들 각자 아버지가 다르므로 서로 다룰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미쓰코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여자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경험을 하며, 오세이를 보는 시각이 변했다.

“세이짱은 아직 젊으니까, 그런 이상이라든지 뭐라든지 말하지만, 어머니 시대와 세이짱시대와는 다르고, 생각도 완전히 다른 거야. 어머니도 우리들을 낳기까지는 여러 가지 괴로운 일도 있었다고 생각해. 나는 그런 일로 어머니를 비난할 수 없어.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해. 아무튼, 나는 네가 공부한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해서라도 공부시키고 싶다고 생각해. 어머니를 원망하기 전에 아자부의 아버지를 원망하는 쪽이 나아.”²¹⁾

앞의 인용문에서 엄마를 동정 할 수가 없다고 말한 미쓰코가 이제는 세이코가 아직 젊어서 어머니를 “비난”하고 있다며, 비난대상은 오세이가 아니라 남자인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말한다. 이는 미쓰코가 남편이 죽고 난후 혼자 살아가면서 느끼는 남자에 대한 생각이기도 하다. 이렇게 미쓰코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세이를 이해하게 된 것이다.

미쓰코는 료헤이가 죽고 난 후 쓰나키치와 알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경제적인 도움에 의한 관계였지만 점차 남녀관계로 발전되고 말았다. 누이코 역시 쓰나키치와 관계가 있었다. 누이코는 남자로서 쓰나키치를 만나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능력 없는 남편을 대신하여 경제적

20) 「あんたが、血の逢つた子供ばかり生むからよ。縫子だつて嘉助だつて光子だつて…」

清子はわざと姉や兄を呼びずてにして、心のうちに(ろくなのは一人もゐないぢやないか)と姉妹をのゝしつてゐた。「母さんは、どうして一々結婚しなけりやならなかつたの? ろくでもないのばかり生んで、逢つた父さん達の血が喧嘩してるみたいよ。母さんには、どれもこれも血を分けた子供か知れないけど、私達には迷惑至極だわねえ……」(p.84)

21) 「清ちゃんはまだ若いから、そんな理想だとか何とか云つてるけど、お母さんの時代と、清ちゃんのじだいとは違ふし考えだつてまるきり違ふのよ。—お母さんだつて、私達を生むまでには色々苦しいこともあつたと思ふの、そんなことは私はお母さんを責められない…責められはしないと思ふのよ。—それよか、私、あんたが勉強するつもりだつたら、どんなことしたつて清ちゃんを勉強させたいと思ふわ…お母さんの事なんかうらむ前に、麻布のお父さんをうらんだ方がいいよ」(p.104)

으로 기대고 있었다. 이렇게 자매는 쓰나키치와 “성욕과 물욕의 유착”²²⁾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이런 쓰나키치가 세이코를 자신의 결혼상대로 원했다. 쓰나키치는 세이코보다 나이도 15세나 많으며 3번이나 이혼한 경력이 있었다. 그러나 단지 장사에 재주가 있어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한 편에 속해, 가족들은 신체적 결합이 있는 세이코의 결혼상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이코는 쓰나키치와의 결혼설에 대해 미쓰코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한다.

“언니는 어때? 나는 그런 사람과 결혼할 바에야 차라리 평생 비구니가 되어도 좋아. 비록 불구자라고 해도 그런 사람과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 이런 나 같은 사람이라도 여러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 아직 정확히는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 모르지만, 나는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어.”²³⁾

누이코와 미쓰코까지 쓰나키치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세이코는 “비구니”가 되는 한이 있어도 쓰나키치와의 결혼은 싫다고 단호하게 거절한다. 실제로 이런 결혼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후미코는 이 작품을 처음 시작할 때 “모델도 아무것도 없이” 그저 경험이 있는 헌옷가게를 배경으로 하면서 시타마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평범한 소설”을 쓰려고 생각했다고 밝히고 있다.²⁴⁾ 하지만 아버지가 세 사람이나 되는 “특이한 가족 모습”²⁵⁾에다, 두 언니와 이성관계가 있는 남자를 여동생의 결혼상대로 생각하는 특이한 설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후미코가 『번개』라는 의미를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여러 인물들이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격심한 인간의 움직임”²⁶⁾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이코는 이렇게 형제들이 여러 사정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오세이가 여러 남자와 관계를 맺으며, 그때마다 아이를 출산한 “나쁜 여자”(p.94)이기 때문이라고 비난한다. 그리고 누이코의 남성편력 역시 오세이의 영향이라고 말하며, 정상적인 가정의 형태를 취할 수 없는 가족의 한계를 느낀다.

22) 溝部優實子(1998)『『稲妻』-虚空を立派に打ちやぶるってゆく女の實速』『国文学解釈と鑑賞』63(1) 至文堂, p.114

23) 貴女はどんなのよ? 私はあんな人と結婚する位だつたら、一生尼寺へ行つてもいいわ。たとへ不具者でも、あんなひととは結婚したくない……こんあ、私のやうなものだつて色々考へてゐることはあるのよ。展いてゆく道は、まだ本 當はどうしていいかわからないけれど、私、もつと堂々と暮らしたい。(p.103)

24) 林芙美子(1952)『私の仕事』전게서, p.245 참조

25) 福田清人・遠藤充彦(1992) 전게서, p.138

26) 江種満子(1981)『林芙美子論-『女の日記』『稲妻』の位置-』『日本文学』30(6), 日本文学会, p.53

3. 세이코의 내면화 된 차별의식

세이코는 자신의 결혼에 대해 생각 안한 것은 아니지만, 신체적 결합으로 인해 가족들로부터 쓰나키치의 결혼 상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에 모순을 느꼈다.

“결혼 못하는 건 입술 때문이 아니잖아요. 나야말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서든 갈 거야.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엉뚱한 일 하지 마세요. 언니들 같은 결혼은 싫다는 것뿐이에요.”²⁷⁾

세이코는 자신이 언청이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안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스스로 입술이 큰 핸디캡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작은 상점 유리문에 비춰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세이코는 조금의 권리조차도 없는 초라한 여자를 발견했다. ²⁸⁾

그러나 세이코는 가족으로부터 신체적 불구를 감안한 결혼 상대를 소개 받는 것은 “육친(肉親) 모두에게 모욕을 당하는 기분”이 들었다. 그렇다면 텍스트에 나와 있는 세이코의 모습을 살펴보자.

눈썹은 갈색을 띄고 있고 코는 작았지만 보기 싫다고 생각되지는 않았다. 윗입술은 대체 왜 이럴까? 세이코는 코를 수술할 때처럼 잔혹하게 입술을 뒤집었다. 껌맨 자국이 정그럽게 남아있고 상어의 혀처럼 투덜투덜한 두둑이 포개어져 있었다. ²⁹⁾

세이코의 윗입술 언저리에는 수술자국이 보기 싫게 남아 있었다. 세이코는 “여름에도 마스크를 쓰고 학교를 다녔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자 “어깨가 경직된 채로 생각”(p.29)에 잠기기도

27) お嫁にゆかないのは、私の唇のせみぢやないんですよ、私だつて行きたかつたら、どんなに辛抱したつて行きます。人並ぢやないなんて思つてないのだから、見當違ひしないでよ。姉さん達みたいな結婚は厭だつて云つてるだけなのよ。(p.22)

28) 小さい商店の硝子戸に寫る自分の姿を見て、清子は一片の權利すらもないみすばらしい女をそこに見るのであつた。(p.31)

29) 眉は香ばしい色をしてゐるし、鼻は小さかつたが、見苦しいとは思はない。上唇、これだけは何の約束なの?
清子は鼻を手術する時のような残酷さで上唇をめくつた。縫つた跡が厭らしくのこつてゐて、鱧の舌のやうにべらべらした畝がかぶさりあつてゐた。(p.29)

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얼굴이 “평범하며 바보스럽고, 어리석어 보이는 언니들 얼굴과 조금도 닮지 않았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다. 그뿐 만아니라, 세이코는 세 자매 중에서 유일하게 여학교를 졸업했다는 자긍심이 있었다. 그러나 가족들에게 있어 세이코는 장애인에 불과했다. 세이코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공부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전화교환원을 그만두었다. 그러나 공부하겠다는 이유가 “뭔가 더러운 것 한줌 남김없이 다 버리고” 싶은 마음과, “이런 얼굴도 잊어버리고 싶”(p.105)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렇다면 세이코가 오세이에게 자신이 “언청이”이고 “사생아”인 것 보다 형제들의 아버지가 서로 다르다는 것에 화가 난다고 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선천적인 언청이가 그녀의 성격에 어둡고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던 것”³⁰⁾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세이코는 자신의 신체적 불구에 대한 큰 콤플렉스를 안고 있었다.

한편, 세이코와 결혼하고 싶다는 쓰나키치는 두 언니와의 관계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한다.

“당신 언니들의 일을 이상하게 추측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언니들이 유혹해 온 거야. 오누이씨는 류키치(龍吉)가 싫다고 해. 내 쪽에서 제안한 얘기도 뭐도 아니야. 응? 오미쓰씨랑도 사정이 있기는 있지, 하지만 그것도 내가 알 바 아니야. 그럴 생각은 없지만 두 사람 다 나와는 상관없이 자매끼리 다툰 거야.”³¹⁾

더 나아가, 쓰나키치는 두 언니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며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밝힌다.

시부야의 학켄다나(百軒店)에 있는 쓰나키치의 가정빵집은 처음 세이코와 결혼해서 세이코에게 주기위해 만든 가게라고 말했다. 이로하는 누이코, 간다의 미쓰는 미쓰코에게, 쓰나키치에게 있어서는 우연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세이코 생각은 마치 세 자매가 이 쓰나키치에 기생하는 나무 같은 상태인 것이, 이상한 기분이었다”³²⁾

30) 福田清人・遠藤充彦(1992), 전제서, p.140

31) 「お前、姉さん達のことを妙にかんぐつてるかもしれないが、ありゃア据膳さ……お縫さんは龍吉をきらつてるんだよ。俺の方から持ちかけた話でもなんでもないんだぜ……えゝ？ お光さんともわけはあるにはあるさ、だが、これも俺の知つたこつちやない。そのはずぢやアないか、二人とも、俺に文句は云はねえで、姉妹でせゝりあひだもんな…(p.90)

32) 澁谷の百軒店にある綱吉の家庭パンに店は、初め、清子と結婚して清子にやらせる爲につくつた店だと綱吉がさる云つた。いろはは縫子、神田のミツは光子に、綱吉にとつては偶然の事かも知れないが、清子は考へて行きながら、まるで、三人の姉妹が、この綱吉にやどり木のやうな状態なのが、不思議な氣持ちだつた。(p.90)

쓰나키치는 “막내 세이코 까지”³³⁾ 자신의 여자로 만들어 재산을 조금씩 떼어주며 군림하겠다는 속셈이었다. 세이코는 쓰나키치가 경제력을 앞세워 언니들을 농락하고, 두 언니는 그런 “쓰나키치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것”(p.90) 같았다. 결국 세이코는 오세이 뿐만 아니라, 두 언니의 결혼생활을 보면서 왠지 자신의 미래도 불행해 질 것 같은 생각마저 들었다.

세이코가 이런 생각을 할 즈음, 누이코 보다 이성적인 미쓰코는 일본에서의 생활이 힘들어 지자 중국에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오세이가 걱정이라고 한다.

“괜찮아. 단지 걱정인건 어머니뿐이야.”

“어머니? 그 사람은 누이언니가 있으니까 괜찮아. 나 말이야, 오늘 간다(神田)에 가서 어머니랑 심하게 싸우고 왔어.”

“노인과 싸우는 건 그만둬. 아무리 너가 이치에 맞는 말을 해도, 이제와서 어떻게 되게 아니잖아? 가엾어, 비난하거나 하는 것은……”

“이상하네, 언니 요즘 그렇게 기가 약해진 거야? 나는 어머니랑 만나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³⁴⁾

세이코는 누이코가 오세이를 돌보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미쓰코는 누이코의 성격을 잘 알고 있으므로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세이코 역시, 자신에게 빗을 던지기도 하고, 급기야 “너 같은 불구자는 보고 싶지 않다” (p.104)며 재단용 가위를 집어 던지기도 한 누이코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세이코는 누이코의 이런 행동은 오세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오세이를 돌보는 것도 닮은 누이코에게 맡겨야 된다고 말한다. 미쓰코는 끝내 중국으로 떠나지 못한다.

세이코 역시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 혼자 살기위해 오쿠보(大久保)에 방을 구한다. 처음 만난 과일가게 주인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세이코의 입술 아래 상처를 주시하고 나서 천천히 세이코의 눈”을 바라보았지만, 조금도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육친(肉親)으로부터 동정”(p.72)을 받은 것보다 냉혹한 현실 속에 서 있는 느낌이 신선한 충격으로 와 닿기 까지 했다.

33) 板垣直子(1965), 전제서, p.181

34) 「大丈夫よ……たゞ心配なのは母さんだけだねえ」「お母さん? あのひとはお縫姉さんがゐるから大丈夫だわ。—今日、神田へ行つて、私ねお母さんとさんざん喧嘩して來ちやつたの」「年寄りとするのなんかおよしなさいよ。いくら貴女が理窟を云つたところで、もう、どうにもならないぢやないの? 可哀想よ、責めたりなんかするの……」
「をかしいわねえ、そんなに姉さんは此頃氣が弱くなつたのかしら?—私、母さんに逢ふと腹が立つて來て仕方がないのよ……」(p.103)

세이코는 이사해오던 첫날부터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계로 끌려가는 듯한 피아노 소리를 듣게 된다. 새로운 세계로의 환상이기도 했다.

세이코의 어두운 기분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는 듯이 앞집에서 피아노 소리가 새나오고 있다. 무슨 곡인지 모르겠지만, 세이코의 현재의 마음에 뭔가 전율이 일어났다. 변소와 같이 냄새나는 욕천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35)

피아노 소리에 이어, 피아노를 친 구니무네와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세이코는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구니무네는 불구자에 대해 누구나가 하는 것처럼 세이코를 찝찝맞게 대하지 않았다. 당당하게 세이코의 얼굴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을 걸어왔다. 세이코는 지금까지 자신 주위 사람들로 부터 벗어나 갑자기 의식적인 발전이 있는 이성 친구가 생겨, 생기 넘치는 희망이 있는 무언가를 느끼는 것이었다. 무한한 퍼짐이 조용히 세이코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36)

구니무네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의 입술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얼굴을 바로 쳐다보며 말을 걸어왔다. 지금까지 사람들로 부터 장애인 취급을 받아왔던 세이코로서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갑자기 “이성 친구”를 얻은 느낌마저 들 정도로 친근감이 들어 구니무네의 가족사항을 물었다.

구니무네는 여학교에 있는 여동생이 한 명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부모님도 여동생도 자 신을 신뢰하고 있으며, 자신 같은 능력 없는 아들을 세상에서 제일 믿음직한 녀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욕천이라고 하는 건 감사한 존재라고 말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다른 녀석들로, 제 재능을 조금도 신용해 주지 않았으니까요.”37)

35) 清子の暗い気持ちの中へ割り込むやうにして、前の家からピアノがもれてゐる。何の曲なのか知らなかったが、清子のいまの心には何かこたへて來た。厠穢のやうな肉親から遠く離れてゆきたい氣 持ちだつた。(pp.84-85)

36) 國宗は不具者に對して誰もがするやうな、そんなよそよそしい心づかひを清子にしなかつた。堂々と清子の顔を眺め、清子に何かと話しかけて來てゐる。清子はいままでの自分の周圍の人物から、急に意識的な、發展のある異性の友達をつくり得て、活々と希望のあるなんかを感じるのであつた。無限なひろがり、靜かに清子の前へ進み寄つて來てゐる。(p.100)

37) 國宗は女學校へ行つてゐる妹が一人あるきりだと云つた。両親も妹も僕を信賴してゐて、僕のやうななまくら息子を、世界中で一番たのもし奴と思つてゐるのだから、肉親と云ふものは有難いものだ と云ふのである。「氣に入らないのは他人の奴等で、僕の才能を少しも信用してくれないんですからねえ」(pp.101-102)

세이코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인정해 주지 않지만, 가족은 자신을 가장 “신화”하며 믿음직스럽게 생각한다는 구니무네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처지를 떠올린다. 자신은 가족들에게 불구자 취급을 받으며 결혼도 평범한 사람과 할 수 없다는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렇게 가족으로 부터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세이코를 정상인으로 대우해 주는 구니무네에 대한 “질은 사모”³⁸⁾의 감정이 싹텄다.

세이코는 구니무네에게 느끼는 덧없는 연모의 기분을 생각하자, 화가 치밀어 눈물이 그칠 줄 모르고 세차게 흘러내렸다. 멀리서 천둥소리가 울리고 있다.

때때로 번개가 흰 방을 파랗게 번져갔다.

“사실은 나 같은 거 죽어 태어나는 쪽이 좋았어. 태어나지 않는 쪽이 좋아...”³⁹⁾

세이코가 구니무네를 생각하며 연모하는 마음이 생길수록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인지하며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런데 뜻밖에 세이코는 구니무네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 본적이 없는 외모에 대한 칭찬을 듣게 된다.

“당신은 정말로 좋은 눈을 하고 있네요. 아버지나 어머니의 집안이 우라니혼(裏日本)⁴⁰⁾쪽이지 않았습니까?”라는 말을 했다. 세이코는 용모에 대한 말을 듣자, 갑자기 슬픈 기분이 되어, 참외를 서둘러 먹었다. 참외의 단맛이 묘하게 쓸쓸함을 불러 일으켜 갑자기 오세이의 가난한 뒷모습이 떠오르기도 했다.⁴¹⁾

이렇게 구니무네로부터 정상인으로 대우를 받게 되자 가족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렇게 정렬하던 누이코의 “갑자기 나이 먹은 것처럼 부운 얼굴”과 “초라해진 언니 모습”에 눈물이 났다. 이제껏 부정해 왔던 “영락해진 언니의 모습 속에서 자신과 비슷한 용모를 가진 부분”(p.96)을 발견하고, 세이코는 자신의 마음 속 깊은 곳에 가족에 대한 애착이 있음을 인식하

38) 板垣直子(1965), 전제서, p.181

39) 清子は國宗への深い恋慕の気持ちを考えると、煮えるやうな涙がとめどなくほとばしつて来る。遠くで雷鳴がしてゐる。時々稲光りがさつと部屋を清く染めてゆく。「本当は、私なんか死んで生まれた方がよかつたのよ、生まれない方がいいの。。。。」(pp.105-106)

40) 우라니혼(裏日本): 혼슈(本州)의 일본해(日本海)에 접한 지방을 칭함.

41) 「貴女は實にいい眼をしてゐますね。お父さんかお母さんのお身うちのうちに、裏日本の方でもいらつしやるンぢやありませんか?」と、そんなことを云つた。清子は容貌のことを云はれると、急に哀しい気持ちになつて、瓜をさきさきと食べた。瓜の甘さが妙に哀しいものを誘ひ、急におせいの貧しい後姿が浮んで來たりする。(p.101)

게 된다.

세이코는 일부러 불행한 생각을 하고, 언제나 점점 늙어가는 어머니에게 아끼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를 냈지만, 그 어머니가 이제와서 견디기 힘들 정도로 슬프고 사랑스러운 기분이 든 것이다. 황혼의 하얀 별이 세이코의 눈에 아름답게 보였다. 세이코는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캄캄한 부엌에서 엄마를 데리고 올까 하고 하얀 별을 바라보면서 계속 걷고 있다. 42)

세이코는 이성으로 연정을 느끼는 구니무네로부터 자신의 존재감을 인식하자, 형제와 오세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

세이코는 유리창 쪽에 가서 하얗게 내리는 강한 비 속의 지붕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빗속에 구니무네의 집도 조용히 자고 있었다. 어두운 하늘에 하얀 번개가 한 줄기, 두 줄기의 빠른 속도로 번쩍이고 있다.43)

모리 에이치는 구니무네와 세이코의 만남에서 생긴 일은 “번개의 한 순간의 빛과 함께 사라지고, 그 후에는 어두운 하늘만 남는”44) 것처럼 아무런 해결방안 없이 작품이 끝난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만남은 짧았지만, 세이코의 사고에는 번개와 같은 빠른 속도로 큰 변화가 있어 스스로 장애인이라는 편파적인 시각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그렇게 본다면 “어두운 하늘에 하얀 번개”까지 후미코가 그리고 싶었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로서는 세이코는 정상인으로 대해주는 구니무네에게 연정을 느끼자, 평범한 결혼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러자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가족의 소중함, 특히 오세이와 누이코에 대한 가엾은 마음이 생김과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짓누르던 차별의식에서 스스로 벗어나게 된다.

42) 求めて不幸な思ひをして、何時もしよぼしよぼしてゐる母親に、さつき殺したい程、清子は腹を立ててゐながら、その母が清子にはたまらなく哀しく可愛い氣持ちになつて來るのだ。黄昏の白い星が清子の眼にすがすがしかつた。清子はもう一度引つかへして行つて、暗い臺所から母を連れ出して來ようかと、白し星を眺めながら歩きつゞけてゐる。(p.98)

43) 清子は硝子窓の方に立つて行つて、白く降る激しい雨の下の屋根を眺めてゐた。雨の中のに國宗の家も靜かに眠つてゐた。暗い空に、白い稲妻一筋二筋一瞬の速さで速く走つて行つてゐる。(p.106)

44) 森英一(1992), 전계서, p.148

4. 결론

세이코는 “언청이”라는 장애가 있지만, 여학교를 졸업하고 전화 교환원으로 직장도 다니고 있어 가족 중에 가장 엘리트라는 의식이 있었다. 그러나 그건 단순히 세이코 혼자의 생각에 지나지 않았다. 누이코와 미쓰코, 두 자매는 이미 쓰나키치와 교제를 해오면서도 세이코의 결혼 상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구니무네가 경제력을 앞세워 세 자매를 모두 자신의 여자로 만들고 싶어 하는 욕망도 있었지만, 가족들이 세이코를 정상적인 결혼을 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세이코는 가족들 중에서 자신이 가장 공부도 많이 하고 월등하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평범한 결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세이코는 이런 가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 자신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공부밖에 없다는 생각에 전화교환원을 그만두었다. 그러나 공부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그려져 있지 않고, 단순히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과 장애인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라고 말한다. 세이코에게 있어 “언청이”이라는 장애가 그녀의 성격에 어둡고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세이코는 가족과 떨어져 살기 위해 오쿠보로 이사하게 된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세계와는 다른 세계로 와 있는 환상마저 느끼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세이코는 피아노를 친 구니무네와 처음 만났을 때, 보통 사람처럼 대해 주는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게다가 구니무네로부터 “좋은 눈”을 가졌다는 칭찬까지 들으면서 장애인이라는 의식에서 벗어난 해방감을 맛보기도 한다.

세이코는 지금까지 형제들의 아버지가 서로 달라 화합 할 수 없다며 비난해 오던 오세이가 가엾게 느껴졌다. 또한, 세이코가 가장 싫어했던 누이코의 모습에서도 자신과 닮은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가족으로 유대감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구니무네와의 짧은 만남을 통하여, 세이코가 느꼈던 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신체적 결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동시에 찾을 수 있게 된다.

후미코는 마지막 장면의 어두운 하늘에 비취는 “하얀 번개 한줄기”는 여러 인물들의 격심한 인간의 갈등이 정리되는 서광으로 표현하며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는 세이코가 힘들어했던 가족의 한계도 스스로가 장애를 극복하지 못했던 내부갈등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인식하게 된다.

【参考文献】

- 박호영(2009)「후미코(林芙美子)의『번개』(稲妻)론」『일본문화연구』30, 동아시아일본학회, pp.301-319
- 최연(2004)「후미코(林芙美子) 문학연구-여성성의 표현 양상을 중심으로-」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 논문, pp.1-264
- 磯貝英夫(1986)「評傳」『新潮日本文學 アルバム 林芙美子』新潮社, pp.2-96
- 板垣直子(1965)「小説『婦人作家評傳』日本圖書センター, pp.172-196
- 江種満子(1981)「林芙美子論-『女の日記』『稲妻』の位置-」『日本文学』30(6), 日本文学会, pp.44-55
- 川井美智子(1973)「林芙美子-女の生活の場について」『女流文藝研究』南窓社, pp.209-218
- 川本三郎(2003)「昭和明10年代を生きる『稲妻』と『波濤』」『林芙美子の昭和』新書館, pp.253-268
- 林芙美子(1952)「著者の言葉-長篇小説集創作ノート-」『林芙美子全集』5 新潮社, pp.270-275
- _____ (1952)「私の仕事-自作案内書」『林芙美子全集』19 新潮社, pp.245-248
- 福田清人・遠藤充彦(1992)「『稲妻』」『人と作品-林芙美子』15 清水書院, pp.135-147
- 溝部優實子(1998)「『稲妻』-虚空を立派に打ちやぶるってゆく女の實速」『国文学解釈と鑑賞』63(1)至文, pp.112-116
- 森英一(1992)「長篇へ-『稲妻』」『林芙美子の形成-その生と表現』有精堂, pp.144-169
- 和田芳恵(1968)「感想」『日本短篇文學全集』39 筑摩書房, pp.273-277

논문투고일 : 2013년 09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3년 09월 20일
 1차 수정일 : 2013년 10월 09일
 2차 수정일 : 2013년 10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3년 10월 21일

 <要旨>

하야시 후미코의 『번개(稲妻)』론 - 세이코의 내면 갈등을 중심으로 -

세이코는 ‘언청이’라는 장애가 있지만, 여학교를 졸업하고 전화 교환원으로 직장도 다니고 있어 가족 중에 가장 엘리트라는 의식이 있었다. 그러나 그건 단순히 세이코 혼자만의 생각에 지나지 않았다. 가족들은 두 언니의 물욕과 성욕의 상대가 되고 있는 쓰나키치의 경제력을 앞세워 자신의 결혼상대로 소개했다. 비로소 세이코는 가족들이 자신을 정상적인 결혼을 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세이코는 가족과 떨어져 오쿠보로 이사를 했다. 그런데 옆집에서 들려오는 구니무네의 피아노 소리가 세이코를 다른 세계로 와 있는 환상마저 느끼게 했다. 게다가 보통 사람들처럼 대해 주는 구니무네로 인해 세이코는 처음으로 장애인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난 해방감을 맛보게 된다. 더 나아가 구니무네로부터 “좋은 눈”을 가졌다는 칭찬까지 들으니, 지금까지 자신이 아버지가 서로 달라 화합 할 수 없다며 비난해 오던 오세이가 가엾게 느껴졌다. 또한, 세이코가 가장 싫어했던 누이코의 모습에서도 자신과 닮은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가족으로 유대감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세이코는 오세이를 비롯한 가족의 한계를 느끼며 힘들어 했던 것은 스스로가 장애를 극복하지 못했던 내부갈등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인식하게 된다.

A Study on “Inazuma” by Fumiko Hayashi

- With a Special Reference to Seiko's Internal Conflict -

Being suffered from a cleft lip and palate, Seiko graduated from a girls' high school and went to work as a telephone operator. She was proud of her self, because she had a highest education among her family members. However, it was owned by only herself. She realized that they looked at her as a disabled when they asked her to marry Tsukichi who satisfied her older sisters both financially and sexually.

After that, she left home and moved to Okubo. In the place, there was an illusion world, which was created by her neighbour, Kunimune's piano. In addition, he treated her as an ordinary person and it brought her a spiritual freedom which she had never experienced. One day, as Kunimune told her she had good eyes, she started feeling that her mother, Osei was miserable, even though Seiko blamed her mother because her father was different from her sisters.

Later she found something similar to hers into one of her older sisters, Nuiko who she hated the most and felt solidarity as a family member. Finally, Seiko found out that all the suffers from her family were caused by her internal conflict.